흔들리는 '아트광주' 상설기구부터 만들어야

행사 때마다 주관단체 선정 진통…운영 노하우·전문 인력 양성 못해

"서울의 갤러리들이 왜 광주지역 작가의 작품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면 왜 굳이 타지역 화랑들이 필요한지요? 국제아트페어를 지향하면서 외국갤러리들의 주인은 다 한국사람일까요? 왜 외국갤러리의 출품작가는 한국 사람일까요? 왜 광주시립(미술관)은 외국갤러리의 한국작가 작품을 구매해야할까요? 리움도 하고, 예술의 전당도 하는 앤디워홀 특별전을 꼭 해야할까요? 안 그러면 아트광주의 체면이 안 서나요?"

지난해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2014'가 끝나고 서울에서 참여한 갤러리 관계자에게 받은 이메일 중 일부다.

지난 2010년부터 열리고 있는 광주국제아트페어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해마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올해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상설 사무국 운영 등 지역 사회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광주시는 해마다 행사를 치르는 것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광주국제아트페어 주관 단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아트광주 2015'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한국미협, 광주미협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국비 2억 원을 포함해 4억 원이다. 지난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난항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문제는 주관 단체에 대한 고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한국미협을 주관 단체로 선정하면서 광주미협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주관 단체는 '아트광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아트광주' 주관 단체는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재단, 2011~2012년 광주문화재단을 거쳐 2013~2014년 한국미협으로 넘어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를 한국화랑협회가 운영하는 등 타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각 지역 화랑협회나 특정 단체가 장기 플랜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아트광주'는 광주시가 해마다 주관 단체를 선정하면 행사 기간에만 반짝 사무국이 꾸려지고, 그해 행사를 끝내면 활동을 마치는 형태의 운영을 반복해왔다. 결국 '아트광주'를 꾸준히 성장시킬 만한 행사 운영 노하우 축적과 전문 인력 양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트광주 작품 판매액이 2010년 42억 원에서 2011년 15억 원, 2012년 10억 원, 2013년 11억8000만 원, 2014년 10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트광주' 상설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전체 예산의 일부로 상설 사무국을 만들고, 지속적인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역 기업들의 참여나 갤러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아트광주' 운영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아트쇼 부산'의 경우 지난해 3회째 행사를 개최하면서 85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전년보다 60%가량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트쇼 부산'은 국시비 보조를 받는 '아트광주'와 달리 벡스코와 투자자들이 모여 조직을 꾸려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한 미술인은 "광주아트페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 한해 행사를 치르고 사라지는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의 여건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실상 아트페어는 지역 화랑협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광주에는 지역 화랑을 묶어 주는 네트워크가 없다"며 "향후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지난해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2014'.

운주사 천불천탑 속 '못난이바위' 희망은 뭘까

전용호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 '천개의 소원' 펴내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호(58) 씨가 동화를 펴냈다.

운주사 천불천탑 속에 숨어 있는 '못난이바위'를 토대로 형상화한 '천개의 소원'(북멘토)은 희망과 상상의 가치를 다룬다. 사실 천불천탑 설화는 구전설화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을 다룬 이야기로 유명하다. 운주사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바위는 '누워 있는 불상'으로 알려진 못난이바위다.

이야기는 바위도 걸어 다니던 옛날, 메주 같이 일그러진 못난위바위에게 꿈이 생기면서 시작된다. 많은 바위들과 사람들이 미륵사로 몰려가지만 걸음 불편한 못난이바위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길을 떠나게 되고,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저자는 "운주사의 많은 부처를 누가, 왜, 깎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며 "와불을 일으키면 한양이 그곳으로 옮겨 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한다.

전 작가는 1998년 광주매일 신춘문예에 단편 '물안개'로 등단했으며 '광주 다시 읽기' 등을 펴냈다. 삽화는 EBS다큐프로임 '인간과 개'의 일러스트를 작업했던 가아루씨가 맡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亞예술극장 개관 시즌 커뮤니티 작품 4편 선정

'광인' '아날로그 SNS 삐라'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은 최근 개관 시즌 커뮤니티 작품 제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전라·광주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개관 시즌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 작품을 놓고 2차 개별 인터뷰 심사를 거쳐 모두 4편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미정(김소형) ▲비는 오지않지만, 우리에겐 우산이 있지(김유석) ▲광인(狂人)(윤수안) ▲아날로그 SNS 삐라(정두용)이다.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씩이다.

선정된 팀은 오는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개관 시즌 커뮤니티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막스 아센브렌너(아시아 예술극장 드라마트루기), 안은미(현대무용가)씨 등 6명의 심사위원은 "공연의 현실성과 무대화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협업 가능성, 주제의 적정성 및 공연예술 현장과 조화 등을 고려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

봄도 오는데 뭘 좀 배워볼까

광주성공회센터 청노루 글쓰기

광주성공회센터가 제 11기 청노루 글쓰기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글쓰기 강좌로 오는 3월2일부터 6월15일(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진행된다.

강의는 모두 15주 과정으로,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성공회센터(월산5동 119안전센터 뒷길)에서 열린다. 강의 내용은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이다. 강의는 김영학〈사진〉 조선대 교수가 맡는다.

선착순 30명 모집.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문의 010-5642-9263. /김미은기자 mekim@

예울마루 예술아카데미 모집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는 2015년 상반기 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 예술감상분야는 클래식, 팝음악, 미술사, 예술여행, 인문학 등 5개 강좌로 진행된다.

예울마루 예술아카데미의 대표 강좌 중 하나인 '클래식 파노라마'에는 장일범, 류태형, 박제성, 조희창 등 국내 대표 클래식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 함순용 한국예술철학회 회장이 진행하는 '예술, 아름다움과 추함의 역사탐구', 임진모 팝칼럼리스트가 진행하는 '팝, 경제를 노래하다', 조희창 음악칼럼리스트가 진행하는 '키워드로 본 문화사', 박서재 백제예대 겸임교수가 진행하는 '문화도시 여행' 등 강좌가 마련돼 있다.

예술실기분야에는 성악 아카데미와 어린이영어 뮤지컬 등 2개 강좌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eulmaru.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1-808-7035. /김경인기자 kki@